

질은 푸른빛으로 담아낸 제주섬의 풍경들

소암기념관 '겹겹의 서사' 한국화가 김현철 특별전 모사작부터 계화·산수화 다양한 장르 회화 30여점



질은 푸른빛으로 제주섬 곳곳의 풍경을 담아냈다. 쪽빛 물감이 켜켜이 쌓인 화폭에 담긴 풍경들은 간결하면서도 묵직함을 안겨준다. 서귀포 국립미술관 소암기념관이 마련한 한국화가 금릉 김현철(67) 특별전 '겹겹의 서사'이다.

지난 4일부터 소암기념관 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전시에서는 김 화백의 초기작부터 최근 작업한 회화 30점을 선보인다. 옛 명작을 재현한 모사 작품부터 경북공북원도·창덕궁 인정전 등 전통 목

조 건축물을 묘사한 계화, 한라산 영실, 제주바다, 범섬, 정방폭포, 산방산 등 제주의 풍경을 담은 산수화까지 다양하다.

경북 김천 태생인 김 화백은 서울대학교 회화과와 동대학원 동양화과를 졸업한 뒤 30년간 인물조상, 계화, 산수 풍경 등 다양한 장르의 회화를 작업해 온 작가다. 2011년 제주현대미술관 입주작가로 참여하면서 제주의 자연을 화폭에 담아왔

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과감한 수평선과 작가 특유의 질은 푸른빛인 '금릉 블루'가 자리잡기 시작했다.

그 진가는 바다 그림에서 두드러진다. 린넨 위에 계화나 산을 그린 그림에서 사용한 쪽빛을 열고 진하게 선염해 깊고 그윽한 제주의 바다를 표현했다. 이번 전시에서 처음 선보이는 '영실', '한라산 영실', '제주바다', '범섬' 등 제주 풍경을 주제로 한 작품 4점에서도

우타난다.

서귀포국립미술관 측은 "이번 전시는 작가가 오랜 시간 축적해 온 한국화의 깊이와 현대적 감각을 함께 볼 수 있는 기회"라며 "관람객들이 한국화의 미학과 제주풍경의 매력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시는 9월 14일까지 이어진다.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잔여의 감각들 따라... '나비·까마귀 다음'

스튜디오126서 양희운 전시

제주시 삼도동 관덕정 인근에 있는 대안공간 스튜디오126은 이달 15일까지 양희운 개인전 '나비 다음 까마귀 다음'을 연다. 올해 신진작가 공모 선정작가 3인의 릴레이 개인전 중 첫 번째 전시다.

이번 전시에서는 잔여의 감각들을 회화, 설치, 영상 등으로 표현한 작품 10여점을 선보인다.

작업실 옆 테라스에 앉은 까마귀, 할머니 산소 곁을 떠돌던 이름 모를 나비를 마주한 작가는 이를 직접적으로 형상화하지 않고, 그들이 남기고 간 공기의 떨림과 마음의 잔향을 따라간다. 손으로 묵탄을 문지르고 천을 자르고 묶어내는 작업 등을 통해 비워진 자리로 아픔을 겪는 이들을 위로한다.

양 작가는 성균관대학교 예술대



양희운 '세의 부리를 가진 당신의 출린 눈'

학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에 재학 중이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일요일은 휴관이다. 자세한 사항은 스튜디오 126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소정기자

60년 무대인생... 박정자의 '연극 이야기'

17일 예술 특별강연회 국립제주박물관 진행

배우 박정자가 60년이 넘는 무대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국립제주박물관은 이달 17일 오후 2시 박물관 교육실에서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예술 특별강연회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예술 특별강연회는 대한민국예술원 소속의 문학, 미술, 연극·영화 등 다양한 분야의 원로 예술인들이 그들의 경험과 인생의 지



배우 박정자

해, 문화예술분야의 공적과 성과를 대중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다.

이번 강연에는 대한민국예술원 연극·영화분과 소속 배우 박정자가 '박정자의 연극 이야기'를 주제로 강연할 예정

이다.

박정자는 1962년 연극 '페드라'로 데뷔해 다수의 작품에 출연했으며, 2007년에는 보관문화훈장을 수훈받았다.

참여 신청은 이날부터 박물관 누리집(jeuu.museum.go.kr)에서 사전 예약 또는 현장 접수로 받을 예정이다. 성인 50명을 대상으로 접수 받는다. 박소정기자

재즈 연주자 한 무대에... '프로젝트 재즈-도'

13일 오디토리움 제주

제주에서 재즈 아티스트들의 무대가 펼쳐진다. 이달 13일 제주시 에월을 '오디토리움 제주'에서 열리는 재즈 페스티벌 '프로젝트 재즈-도(Project Jazz-do)'다.

제주 재즈 콜렉티브(Jeju Jazz Collective·이하 JJC)와 오디토리움 제주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공연에는 재즈 피아니스트 조운성을 중심으로 구성된 앙상블을 비롯해 '비정상회담'을 통해 알려진 독일 출신 뮤지션 다니엘 린데만, 네

덜란드 암스테르담 콘서바토리 출신의 기타리스트 박윤우, 베이스스트 정상욱, 재즈 플루티스트 비키호, 버클리음대 출신의 재즈 보컬리스트 리스트, 브라질리언 컨템포러리 재즈에 특화된 보컬리스트 베틀황, 뉴욕을 주무대로 활동중인 기타리스트 김성원 등 연주자들이 무대에 오른다.

공연은 당일 오후 4시·7시30분 두 차례 걸쳐 이뤄진다. 예매 등 자세한 사항은 오디토리움 제주 블로그 그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박소정기자

문화가 쏠리

노형꿈틀도서관 책축제

노형꿈틀작은도서관이 이달 12일 오후 1~4시 도서관에서 여름 책축제 '펄펄펄 책놀이'를 연다.

도서관 개관 17주년을 기념하고 2025 제주어도서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축제는 그림책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도서관 운영단체인 제주그림책연구회가 제작한 제주 그림책 '꿈을 위한 놀이', '책보따리', '책 속 문장 찾기 미션, 그림책 연계 활동, 문화 공연 등이 마련된다.

제주한림문화회 시화전

제주한림문화회가 지난 7일부터 제주시 한림읍사무소 1층 로비에서 시화전을 열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림문화회 회원들이 제주의 자연과 사람, 삶의 이야기를 시와 그림으로 표현한 다채로운 시화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전시는 이달 11일까지 이어진다. 박명희 회장은 "주민들이 문학을 보다 친근하게 접하고, 일상에서 인문학적 사유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문학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학학교 여름문학교실

제주문학학교는 2025 도민문학학교 '바람이 머무는 문학길' 사업의 일환으로 애월문화회와 함께하는 여름문학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여름문학교실은 이달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제주시 애월읍 일대에서 진행되며, 제주문학의 공간과 인물을 현장에서 만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오전에는 애월읍 일대 문학 유적지 탐방, 오후에는 장한철 문학제와 문학 토론회가 이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전화 064-748-3125)을 통해 하면 된다.

"환경 보전 노래 만들어요"

환경여행단체 '초록길벗'은 이달 '환경노래창작소'를 연다. 자연환경보전을 주제로 노래를 만드는 워크숍이다.

심어송라이터이자 환경교육사 예혁이 강사로 나서며 음악 비전공 참가자들이 노래를 작사·작곡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워크숍은 13일·20일·27일 오후 3~6시 3차례에 걸쳐 제주시 일도동 케와 2층에서 진행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다. 자세한 사항은 이메일(greencompanion@naver.com)로 문의하면 된다. 박소정기자

오디가 우리 몸에 좋다는 것을 알지만
싱싱하고 몸에 좋은 오디를 어디서 구입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몸에 좋은 오디농원**으로 오세요.

몸에 좋은 오디농원
대표 김재환 올림

←황세앗

반석아트

신성여중고

■ 몸에좋은 오디농원 3호

■ 몸에좋은 오디농원 2호

■ 몸에좋은 오디농원 1호

영평하동마을회관

영평상동마을회관

첨단과학단지→

연락처 - 010-6614-6829